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전교수녀

꿀벌유치원
요셉어린이집
총회장
연령회총무

정재준
정혁
이춘섭
박경석
정은자
정선아
정정아
최향숙
김아람
황태영
옥윤필

사도요한
요셉 (청년부)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한나 (원장)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베로니카 수녀
소화데레사 수녀
프란치스코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대교구 지침

- 4월 18일(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인원 제한, 키오스크, 발열 체크 없습니다.
- 성가 : 전 신자 함께 부릅니다.
- 성체 분배 : 개별적으로 '아멘' 응답합니다.
-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합니다.

● 알 림

- 4월 16일(성 토요일)부터 본당 알레그로 카페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 4월 21일(목)부터 오전 10시 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4월 28일 19시 40분 강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부터 본당 소모임 및 반모임을 재개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약)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5월 2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5월 7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외박 교우 예비신자 교리반

- 예비모임 : 5월 1일(일) 교중 미사 후 강당
- 기간 : 5월 8일(일) ~ 7월 24일(일), 총 12회
- 시간 : 주일 오전 9시~10시(주일 교중미사 참석 의무)
- 세례식 : 7월 30일(토) 오후 2시

원죄란?

- 원죄의 발단
 - 원조들이 지은 죄 즉 불순종에서 시작
 -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 하느님께 반항
- 원죄란
 - 인간의 헛된 욕망으로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
 -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 등으로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임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5/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4월 6일 ~ 4월 12일)

교 무 금	5,245,000원
주일헌금	6,757,000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1,509,000원
동구로 새마을금고(이계명) 오라토리오 후원	2,000,000원
감사헌금	김성만 5만원 오희훈 10만원 현보영 3만원 신기자 10만원 박희분 5만원 김종란 10만원 강소미 5만원 김○○ 10만원 정애자 5만원 정정숙 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24	이영민	이응남	신종구	김덕영	김강자
5/1	손진희	심재순	신종구	최승일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4/24	오광운	장인홍	이운영	박형순	최창열
5/1	이화봉	최상남	장인홍	최영만	김광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희칙

159. 민중의 감정과 문화적 역동성과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통합과 지도를 위한 그들의 노력과 봉사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항구한 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선 추구에 다른 이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는 건강하지 못한 ‘대중 영합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을 유지하고자 개인이 어떤 이념적 구호 아래 민중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나,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특정 집단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에 그러합니다. 이는 더욱 어설픈 형태든 더욱 정교한 형태든 관계없이 제도와 법률의 유린으로 이어질 때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160. 폐쇄적인 대중 영합주의 집단은 ‘민중’이라는 표현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참된 민중에 대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중’은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민중, 미래가 있는 민중은, 다름을 환대하는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에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민중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민중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을 통하여 행동과 토론에 나서게 되고 넓어지며 풍요로워지게 되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161. 대중적 지도력 쇠퇴의 또 다른 표지는 단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표나 지지를 얻고자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창출하고자 지속적이고 열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어떤 무책임한 대중 영합주의를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불평등의 근절을 위하여 각 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워 지속 가능한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장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일부 시급한 요구들에만 대응하는 복지 계획들은 임시방편일 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62.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참으로 ‘대중적인’ 것은—민중의 선을 증진하는 것이기에—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심어 놓으신 씨앗, 곧 저마다의 재능과 계획과 타고난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난한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움이자 품위 있는 삶을 향한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나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방편이 될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 체계는 변할 수 있으므로 정치는 모두에게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과 노동의 존엄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빈곤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차원입니다. 노동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 건강한 관계 맺음, 자기표현, 은사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세상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민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공동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